

장애인 고용 늘린 SK, 10년만에 꼬리표 뗐다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서 SK 계열 빠져 “장애인 고용 무조건 늘리겠다” 최태원 회장 의지 반영



SK그룹이 장애인 고용하려는 노력이 저조했다는 지적에서 10년만에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애인 고용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8일 발표한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459개소 명단에 SK그룹의 계열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명단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들의 이름이 올랐다. 대기업 집단에서는 LG,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등 12개 그룹 26개 계열사의 이름이 올랐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을 살펴보면 SK그룹의 계열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명단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2010년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표 대상 민간기업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일정 고용률을 넘기지 못한 기업으로 강화했고 SK그룹의 계열사들은 첫해부터 계속해서 명단에 포함돼 왔던 것이다.

10년만에 SK가 ‘장애인 고용 노력 저조 기업’의 오명을 벗어던진 것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소셜벨류 커넥트 2019’ 행사에서 발표

자로부터 SK가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인정하고 “안 되면 무조건 해라. 무조건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생각으로 먼저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업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활동들을 해나갈 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으며 이윤 창출의 폭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최 회장의 다짐 직후 SK그룹의 계열사인 SK머티리얼즈와 SK텔레콤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섰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SK하이닉스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를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에 나서고 있다. 20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온 행복모아는 기존에 방진복 세탁업에 더해 제과·제빵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증장애인 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2.9%의 50%인 1.45%를 넘지 못하는 기업들을 공표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기본 이수 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6개 중 1개 이상을 충족 기업의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본 이수 요건은 △인사 담당자 간담회 개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개선 계획제출이며 추가 이수 요건은 △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 달성 △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 △통합고용지원 서비스 실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실시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맞춤 훈련 실시 6가지다.



이성준 KB국민은행 혁신추진부장, 정문철 KB국민은행 전략본부장, 박희 사단법인 해피피플 대표, 조재현 사단법인 해피피플 이사.

“걸어서 적립 포인트로 장애 청소년 도와요”

국민은행, 6400만원 상당 기부

KB국민은행은 올해 임직원이 적립한 걷기포인트 총 6400만 포인트(6400만원 상당)를 사단법인 해피피플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걷기포인트는 임직원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와이즈넷(m-WiseNet)에 탑재된 걸음수 측정 기능을 통해 측정된 걸음수를 포인트로 환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10걸음을 1포인트(1원)로 환산해 매일 3000보 이상 걸음을 인정하고, 일간 1만보 또는 월간 20만보를 달성하면 추가 포인트를 지급했다.

지난 5월부터 열린 이벤트에는 임직원 5500여명이 참여해 총 6400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기부금은 ‘걷기’라는 테마와 연결해 보행장애가 있는 저소득 청소년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 지원된다. 해피피플은 휠체어나 의족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찾아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정문철 국민은행 전략본부장은 “열심히 걸어 생긴 포인트를 휠체어나 의족 등을 통해 장애 청소년의 보다 원활한 이동이라는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고객 및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좋은 가치를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냄새 나는’ 디지털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담양 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아동 겨울선물 나눔



담양군 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강성령, 김광훈)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협의체 정기회의와 더불어 저소득 아동 겨울선물 전달

- 한부모·조손가정 아동
- 맞춤형 선물 지원 사업
-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

식을 가졌다. 저소득 아동 겨울선물 나눔 사업은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아동에게 맞춤형 선물(통패딩, 가방, 신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날 협의체

는 8명의 아동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을 전달받은 한 자녀의 아버지는 “꿈 아동센터에서 견학을 하는데 아이들이 통패딩을 선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함께 개최한 정기회의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노인일자리 어른들의 나들이 및 장애인 가구 환경개선 봉사활동의 일정을 결의했다.

강성령 면장은 “1년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앞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돌봄을 위해 더 많은 자원들을 동원하여 지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